

# 농가경제의 소득-소비와 불평등 구조 변화 분석

정하영<sup>a\*</sup> · 송예진<sup>b</sup> · 박덕병<sup>c</sup>

<sup>a</sup>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sup>b</sup>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석사과정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sup>c</sup>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 Income-Consumption and Inequality Structural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conomy

Ha-Young Jeong<sup>a</sup> · Ye-Jin Song<sup>b</sup> · Duk-Byeong Park<sup>c</sup>

<sup>a</sup>Ph.D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b</sup>Master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c</sup>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 as well as farm income inequality. Data from the Agricultural Household Survey for the years 2016, 2021, and 2022 were hired to analyze farm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Results show that from 2016 to 2021, all income quintiles exhibited an increasing trend, but in 2022, income decreased across all quintiles. As a result of analyzing farm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d in all income quintiles in 2021 and 2022 compared to 2016, but consumption of optional goods decreased in the fifth quintil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rmers in the first quartile had higher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on options than those in the second quartile. The analysis of farm income by region show that public subsidie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general rural farmers than for farmer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in all income quintiles during the period. In the case of the first quintile, farm household income in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compared to general rural areas. In the fifth quintile, agricultural income and sideline income in general rural areas increased compared to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while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non-business income compared to rural areas. Results of farming income inequality by income type show a steady decline in inequality from 2016 to 2022, indicating that the decreasing gini coefficient of public subsidies is contributing to the decline in farm income inequality. Private subsidies and side income are shown to increase inequality.

**Key words:** farm household income, farm household consumption,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 1. 서론

농업·농촌 정책으로 농가 빈곤 격차 해소와 농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농가소득 불평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미복, 오내원, & 황의식, 2016; 김규섭, & 이성근, 2014; 고갑석, &

김윤식, 2016; Babatunde, 2008; Mishra, El-Osta, & Gillespie, 2009). 농업정책 변화는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소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과 유형에 따라 농가 간 불평등이 발생한다. 빈곤은 평균 소득보다 소득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Mishra et al., 2009). 즉, 평균소득 뿐만 아니라

주요어: 농가소득, 농가소비,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교신저자(정하영) 전화: 041-330-1380, e-mail: wjgkdud2@naver.com

그 소득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재분배되는지도 중요하다.

농립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2000년대 이후 정체 상태이다. 농업의존도는 점차 감소하여 소득 불안정과 더불어 농가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농가 간 소득 불평등성의 증가 원인은 고소득 농가 대비 저소득 농가 간의 격차, 영농 규모는 대규모 농가 대비 소규모 농가 간에서 불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농촌 간의 소득 불평등을 고령, 교육 수준, 경지면적 등의 차이만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농업소득만큼 중요한 사업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이고, 공간적인 영향을 받아 지역에 따른 소득에서 차이를 만든다(Findeis, & Reddy, 1987; Mishra, El-Osta, Morehart, Johnson, & Hopkins, 2002; Weber et al., 2005). 농가 인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 지역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농가 간의 농외소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외소득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일반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농외소득에서의 불평등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농가소득에 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다룬 만큼 매우 중요하다. 농가소득 불평등은 소득 원천별(박준기, 문한필, & 김용택, 2004; 윤영석, 이병훈, & 박준기, 2016; 정선화, & 강혜정, 2015; 허동용, 2018), 농가 유형화하고 소득분위(김미복, & 박성재, 2014; 이두영, 박준기, 김미복, & 박지연, 2019;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 한보현, 2017; 유찬희, 김윤진, & 김창호, 2020; 황의식, & 박준기, 2002)에 따른 연도별 불평등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농가소득 불평등의 영향 요인으로 농가 소비지출이 있으며,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와 불평등도를 분석한 연구는 김기환, & 서병선(2008), 김성용, & 이계임(2002), 이계임, & 김성용(2003), 정선화, & 강혜정(2015), Mishra, & Moss(2008), Amare et al. (2021) 등의 연구가 있다. 농가 간의 불평등도를 국내 연구는 농가소득에 대해 분석하였다면, 국외 연구는 소득과 대조적인 소비가 웰빙(well-being)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제안한다(Barry et al., 2000; Cutler, & Katz, 1992; Mishra, & Moss, 2008; Slensnick, 1994). 일부 국외 연구자들은 농업인의 삶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으로 소비하는 것이며 소비는 소득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점에서 소득보다 소비가 더 나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Cutler et al., 1992; Barten et al., 1962; Chang, 2012; Deaton, 1997).

농가소득을 다룬 국내 연구에서 농가소득과 지출을 함께 다

룬 연구는 유찬희, 김윤진, & 김창호(2020), 박미선(2023)을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최종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는 소득 또는 지출 중 한 측면만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농가소득과 소득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농가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적이다. Deaton (1997)이 주장한 것과 같이 소득은 과소적으로 추정되고 있어 농가에 대해 소득은 매우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따라서 농가경제 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과 삶의 만족을 제공하는 소비의 구조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농가소득 및 지출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한다는 점과 농촌을 공간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농촌 간 빈곤 격차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가소득과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적 소득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농가가 위치한 지역을 유형화하여 소득-소비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가소득 유형별 농가 불평등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6년, 2021년, 2022년을 비교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에 농가소득 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농가소득 관련 연구는 농가소득의 변동성, 불평등(양극화, 빈곤 등)으로 구분되며, 농가소득 불평등을 소득별(농업소득, 겸업 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등), 농가 유형별, 소득 분위에 따라 분류하였다. 농가소득 변동성 연구에서 황의식, & 문한필(2005), 전지연, 유찬희, & 박준기(2016), 이상원, 추성민, 김관수, & 안동환(2017)는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업소득 변동성에 대해 조사하고 농가의 특성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농가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동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가소득만을 분석한 경우로 김성용(2004)의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겸업 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었다. 소득분위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주도하는 것은 농업소득이며, 농업소득이 적은 하위소득계층의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김태이, 안동환, & 임정빈(2012)는 공적 보조금의 농가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적 보조금은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분석 기간 중 효과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소득의 차이가 농가소득 불평등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도의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Mishra et al.(2009)는 미국 9개 농업지역 농가의 지역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지원금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지며, 소득 평등과 소득 안전성 및 지역 전반의 복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농업 및 기타 모든 수입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anasor, Nwachukwu, Agwu, Njoku, & Onwumere(2013)은 나이지리아 아이비아 주의 농가 경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별 가구 수, 백분율 분포 및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농촌 가구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해당 지역에서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농가의 소득과 지출을 같이 보는 경우로 소비지출에 따른 한계 소비 성향, 불평등에 따른 소비 유형, 지출의 탄력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김성용, & 이계입(2002)은 농가경제의 후생을 분석하는데 소비지출은 농가소득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함축성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농가 소비지출의 불평등 구조는 농가소득의 불평등보다 낮고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는 농기간 불균등도가 낮지만 교육에 대한 지출은 농기간 격차를 발생하여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 구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계입, & 김성용(2003)은 소비지출항목을 지출목적에 따라 필수재와 선택재로 구분하였고, 소득과 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소비는 선택재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농가 소득 수준이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선화, & 강혜정(2015)은 농가의 농가경제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고, 농가 특성을 반영해 소득과 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비계층은 농업외소득보다 사업외소득에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보이며, 사업외소득 증대 방안은 소비 침체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농가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농가소득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농가의 크기, 경영방식, 재배 기술 등이 분화되면서 확실적인 농가 개념을 가지고 농업을 정의하

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점이 나타났다. Saini, & Manjeet(2022)는 편자브 지역의 농가 가계 간 소득 불평등을 추정하고 소득, 성별, 영농형태별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0.48)가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농업 시스템 및 작물, 가축 사육에 참여하는 여성을 위한 저이자 대출,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 등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박미선(2023)은 농가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의 소득과 소비의 구조 분석과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농가소득이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하였으며 공적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하였음을 나타냈다. 농가소득 상승이 총소비를 넘었으며 소득 증가 시 소비 증가 경향은 3분위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규섭, & 이성근(2014)은 지역별 평균농가소득 성장률과 지역별 농가소득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및 중북부 지역은 영호남 지역에 비해 농가소득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외소득 비중은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전업농가 비중 보다 높게 나타나 농가소득이 사업외소득에 의존하는 광역시 유형임을 분석하였다. 농가소득 불평등은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 0.5이상)가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Findeis, & Reddy (1987)는 1984년의 미국 농가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동북부와 남부에서는 사업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가소득의 차이는 지역 내 산업화 정도라고 강조하였다.

농가소득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소득과 소비를 분류하여 농가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농가소득에서 공적 보조금의 중요성을 강조(김성용, 2004; 김태이, 안동환, & 임정빈, 2012; 박미선, 2023; Mishra et al., 2009)하였다. 또한 도시 근교 지역 농가들은 사업외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제시(김규섭, & 이성근, 2014; Findeis et al., 1987)하고 있다. 이는 도시 근교 농촌지역 농가들이 도시의 근접성으로 인하여 사업외소득이 크게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소득 농가에서 선택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 연구 결과(박미선, 2023)를 제시한 반면에, 이계입, & 김성용(2003)은 자산의 증가는 선택재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소비 비중을 크게 확대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농가경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하는 농가경제 조사 2016년, 2021년, 2022년 원자료를 R 4.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농가경제 조사는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이다. 통계청 MDIS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자료부터 농가경제 조사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5년마다 새로 구성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경제 불평등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자료,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연도인 2021년 자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유형화한 뒤,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와 소득 불평등을 기본 통계분석 및 지니계수를 분석하였다.

#### 3.2. 분석방법

소득 불평등 분석은 일반화된 엔트로피 계열 지수(generalized entropy inequality measures),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변이제곱계수(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 분석을 위해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지니계수는 국가 간, 사회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도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불평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 은 인구,  $x_i$ 와  $x_j$ 는  $i$ 번째,  $j$ 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mu$ 가 평균 소득일 때의 지니계수 식은 다음과 같다.

$$GINI = \frac{1}{2n^2\mu} \sum_{i=1}^n \sum_{r=1}^n |x_i - x_r| \quad (1)$$

전체 표본을  $k$ 개의 그룹( $j, h = 1 \dots k$ )으로 나누면 식(1)과 식(2)처럼 나타낼 수 있다.

$n_j$ 와  $n_h$ 는 각각  $j$ 그룹과  $h$ 그룹의 표본 수를 의미하며,  $x_{ji}$ 과  $x_{hr}$ 는 각각  $a$ 그룹과  $b$ 그룹의  $i$ 번째,  $r$ 번째 사람의 소득을 나타낸다.

$$GINI = \frac{1}{2n^2\mu} \sum_{j=1}^k \sum_{h=1}^k \sum_{i=1}^{n_j} \sum_{r=1}^{n_h} |x_{ji} - x_{hr}| \quad (2)$$

각 그룹별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와 두 그룹 간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j$ 그룹 내의 지니계수는 식(3)과 같으며, 그룹 간 지니계수는 식(4)과 같다.

$$G_{jj} = \frac{1}{2n_j^2\mu_j} \sum_{i=1}^{n_j} \sum_{r=1}^{n_j} |x_{ji} - x_{jr}| \quad (3)$$

$$G_{jh} = \frac{1}{n_j n_h (\mu_j + \mu_h)} \sum_{i=1}^{n_j} \sum_{r=1}^{n_h} |x_{ji} - x_{hr}| \quad (4)$$

이때, 식(4)처럼 두 그룹 간의 지니계수는  $j$ 그룹과  $h$ 그룹의 소득 평균값( $\mu_j, \mu_h$ )이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위 식(3)과 식(4)를 기반으로 인구비중( $p_j = \left(\frac{n_j}{n}\right)$ )과 소득비중( $s_j = \left(\frac{n_j \mu_j}{n \mu}\right)$ )을 이용하여, 전체표본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식(5)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지니계수는 같이 그룹 내( $G_w$ )와 그룹 간( $G_b$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GINI = \sum_{j=1}^k G_{jj} p_j s_j + \sum_{j=2}^k \sum_{h=1}^{j-1} G_{jh} (p_j s_h + p_h s_j) = G_w + G_b \quad (5)$$

지니계수는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 또는 부의 분배가 평등하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이너스(-) 소득을 고려하는 것은 지니계수 산출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마이너스 소득을 무시하지 않고 포함할 경우, 지니계수가 1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소득 불평등 정도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농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소득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 마이너스 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은 '0'으로 처리하는 방법(고갑석, & 김윤식, 2016), 정규화하는 방법(Chen et al., 1982)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소득을 '0'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농가소득 구조 분석결과

2016년과 2021년, 2022년의 소득분위별 농가소득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첫째, 2016년 대비 2021년은 모든 분위의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지만, 2022년은 모든 소득분위가 감소하였다. 2016년 대비 2021년 1분위는 273만 원(660만 원→933만 원), 2분위는 765만 원(1,787만 원→2,552만 원), 3분위는 1,069만 원(2,741만 원→3,810만 원), 4분위는 1,551만 원(4,170만 원→5,721만 원), 5분위는 2,694만 원(9,943만 원→12,637만 원)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은 1분위는 470만 원(-50%), 2분위는 205만 원(-8%), 3분위는 175만 원(-5%), 4분위는 318만 원(-6%), 5분위는 718만 원(-6%)이 감소하였다.

둘째, 농업소득에서 1분위는 2016년, 2021년, 2022년 모두 음(-)의 소득을 보이고 있다.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는 2016년에서 2021년은 증가하지만 2022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대비 2022년 1분위 가구의 농업소득 감소분 격차가 크다.

셋째, 농가소득 유형별로 봤을 때, 저소득(1~2분위) 농가일 수록 공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고소득(5분위) 농가일수록 겸업 소득의 비중이 크다. 2022년 기준으로 1분위의 주요 농가소득은 공적 보조금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심화하여 공적 보조금이 2016년 대비 1.8배(571만 원→1,052만 원) 증가하였다. 2~3분위 농가의 경우, 1분위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소득의 대부분이 공적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4~5분위 농가는 겸업 소득이 2016년 대비 2021년, 2022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21년은 505만 원(1,107→1,612), 2022년은 1,029만 원(1,107→2,136) 증가하였다. 넷째, 해당기간 동안 모든 소득 분위는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1분위 공적 보조금이 481만 원(1.8배)으로 증가하였으며, 2분위에서는 549만 원(1.8배), 3분위는 736만 원(1.9배), 4분위는 758만 원(1.8배), 5분위는 842만 원(1.8배) 증가하였다.

<표 1> 2016년, 2021년, 2022년 소득분위별 농가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6년	농가소득	660	1,787	2,741	4,170	9,943
	-농업소득	-415	355	686	1,065	5,097
	-겸업 소득	58	98	184	398	1,107
	-사업외소득	241	342	713	1,425	2,172
	-공적 보조금	571	662	811	923	979
	-사적 보조금	39	90	73	64	38
	2021년	농가소득	933	2,552	3,810	5,721
-농업소득		-545	398	904	1,414	6,566
-겸업 소득		39	219	248	658	1,612
-사업외소득		317	486	894	1,796	2,228
-공적 보조금		955	1,199	1,478	1,560	1,825
-사적 보조금		39	77	92	83	33
2022년		농가소득	463	2,347	3,635	5,403
	-농업소득	-1,242	312	630	1,128	5,055
	-겸업 소득	80	151	251	570	2,136
	-사업외소득	364	422	907	1,739	2,515
	-공적 보조금	1,052	1,211	1,547	1,681	1,821
	-사적 보조금	34	85	92	71	59

주: 1) 소득 분위 구분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등을 포함)

3) 세부 농가소득 중에서 비경상소득은 제외하였음. 따라서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 소득 및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공적 보조금, 사적 보조금)의 합계가 제시된 자료의 농가소득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 차이가 비경상 소득임.

### 4.2. 농가 소비지출 구조 분석결과

2016년과 2021년, 2022년 소득분위별 농가 소비지출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첫째, 2016년과 비교하여 2021, 2022년에 필수재와 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5분위의 선택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21년과 2022년 5분위 선택재는 각각 98만 원(1,902→1,804), 90만 원(1,902→1,812) 감소하였다.

둘째, 해당 기간 동안 1분위가 2분위보다 소비지출액과 선택재의 소비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분위와 2분위의 소비지출과 선택재를 비교해보면 2016년도 소비지출액은 79만 원(1,450→1,371), 선택재는 111만 원(559→448), 2021년도 소비지출액은 39만 원(1,907→1,868), 선택재는 79만 원(775→696), 2022년도 소비지출액은 159만 원(2,002→1,843), 선택재는 180만 원(864→684)으로 분석된다.

농가소득의 경우, 1분위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낮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점차 증가하여 5분위는 고소득 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 소비지출 구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소비지출 중 선택재와 필수재의 비중으로 농민의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2분위의 소비지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1분위의 총소비지출이 2분위의 총소비지출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필수재 소비지출 차이를 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수재 지출이 농가에 필수적인 지출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3. 지역별 농가소득 구조 분석결과

2016년과 2021년, 2022년 특·광역시 농촌, 일반농촌의 농가소득 구조에 대한 소득분위별 특징은 <표 3>과 같다. 첫째, 1분위 농가소득은 2016년 대비 2021년과 2022년의 특·광역시 농촌과 일반농촌은 상대적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특·광역시 농촌 1분위와 일반농촌 1분위의 농가소득의 차이는 21만 원이고, 2021년에는 934만 원, 2022년에는 1215만 원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특·광역시 농촌과 일반농촌이 1.03배 차이가 발생했고, 2021년은 2.06배, 2022년은 3.02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특·광역시 농촌과 일반농촌의 1분위 농가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모든 소득분위에서 특·광역시 농촌 보다 일반농촌의 공적 보조금이 2016년 대비 2021년, 2022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021년, 2022년의 일반농촌 공적 보조금을 보면 2016년 기준 2021년에는 1분위는 389(574→963), 2분위는 529(663→1,192), 3분위는 690(799→1,486), 4분위는 632(926→1,558), 5분위는 850(982→1,832) 증가하였다.

셋째, 소득분위 5분위에서 일반농촌 지역의 농가가 특·광역시 농촌지역 농가보다 농업소득과 겸업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광역시 농촌지역은 사업외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의 경우 일반농촌보다 특·광역시 농촌의 사업외소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은 491(2,640→2,149), 2021년은 3,013(5,171→2,158), 2022년에는 1,833(4,278→2,445)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농업소득과 겸업

(표 2) 2016년, 2021년, 2022년 소득분위별 농가소비지출 단위: 만 원

구분	분위별 농가소비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6년	소비지출	1,450	1,371	1,802	2,243	3,261
	-필수재	891	922	1,048	1,165	1,358
	-선택재	559	448	753	1,078	1,902
2021년	소비지출	1,907	1,868	2,144	2,598	3,455
	-필수재	1,131	1,171	1,260	1,355	1,651
	-선택재	775	696	883	1,243	1,804
2022년	소비지출	2,002	1,843	2,206	2,572	3,342
	-필수재	1,137	1,158	1,266	1,336	1,530
	-선택재	864	684	940	1,235	1,812

주: 1) 소득 분위 구분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처분가능소득= 농가소득-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등을 포함)  
 3) 필수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비용, 가정용품·가사서비스비용, 보건비용을 의미하며, 선택재는 주류·담배,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숙박, 보험, 기타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함. 본 연구는 소비항목별 재화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이계인, & 김성용(2003)의 기준으로 재화 유형을 구분하였음.

소득의 경우 일반농촌이 특·광역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2016년에는 1,804(3,376→5,180), 2021년은 4,026(2,634→6,660), 2022년은 2,645(2,511→5,156)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겸업 소득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일반농촌보다 특·광역시의 소득이 많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이

를 추월하여 특·광역시 보다 일반 농촌의 겸업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일반농촌과 특·광역시 농촌을 비교했을 때 일반농촌이 15.6배, 2022년은 2.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특·광역시 농촌 및 일반농촌의 소득분위별 농가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지역소득분위별 농가소득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6년	특·광역시 농촌	농가소득	680	1825	2965	4175	8942
	-농업소득	-444	393	630	981	3376	
	-겸업 소득	132	127	450	425	1704	
	-사업외소득	272	326	518	1557	2640	
	-공적 보조금	512	625	1134	824	922	
	-사적 보조금	39	93	22	127	37	
	일반농촌	농가소득	659	1785	2733	4170	9992
	-농업소득	-414	353	688	1068	5180	
	-겸업 소득	54	96	174	397	1078	
	-사업외소득	239	343	720	1421	2149	
	-공적 보조금	574	663	799	926	982	
	-사적 보조금	39	89	75	62	38	
2021년	특·광역시 농촌	농가소득	1,815	2,560	3,754	5,893	9,718
	-농업소득	169	294	1,062	995	2,634	
	-겸업 소득	166	266	101	765	105	
	-사업외소득	437	515	1,098	2,022	5,171	
	-공적 보조금	820	1,329	1,239	1,608	1,545	
	-사적 보조금	63	20	98	293	57	
	일반농촌	농가소득	881	2,551	3,812	5,712	12,707
	-농업소득	-588	403	898	1,436	6,660	
	-겸업 소득	32	217	253	653	1,648	
	-사업외소득	310	484	887	1,784	2,158	
	-공적 보조금	963	1,192	1,486	1,558	1,832	
	-사적 보조금	38	80	91	72	33	
2022년	특·광역시 농촌	농가소득	1,258	2,556	3,616	5,290	9,792
	-농업소득	-94	216	659	572	2,511	
	-겸업 소득	133	143	180	504	742	
	-사업외소득	262	962	1,105	1,969	4,278	
	-공적 보조금	767	1,046	1,394	1,831	1,658	
	-사적 보조금	55	62	70	133	331	
	일반농촌	농가소득	416	2,338	3,636	5,408	12,004
	-농업소득	-1,309	317	629	1,153	5,156	
	-겸업 소득	77	151	254	573	2,192	
	-사업외소득	370	398	900	1,729	2,445	
	-공적 보조금	1,068	1,218	1,553	1,674	1,827	
	-사적 보조금	33	86	93	68	48	

주: 1) 소득 분위 구분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2) 특·광역시 농촌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하며, 일반농촌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 4.4. 농가 경제의 소득 불균형 구조 분석결과

지니계수를 이용해 연도별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2016년과 2020년, 2022년 농가 경제의 소득분배 효과를 지니계수 변화율을 통해 분석한 값은 <표 4>와 같다. 지니계수 변화율의 양(+)의 값은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농가소득의 경우 2016년 기준의 지니계수는 0.4619이며, 2021년 지니계수인 0.4374보다 -5.30% 감소하였다. 2022년 지니계수는 0.4457이고 -3.51% 감소하여 연도별 농가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었다. 농업소득의 경우 2016년 기준의 지니계수는 0.7676이고 2021년 지니계수인 0.7513보다 -2.13% 감소율을 보이고, 2022년 지니계수는 0.7870으로 2016년 대비 2.53%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겸업 소득의 경우 2016년 기준의 지니계수는 0.8900이고, 2021년 지니계수인 0.8972보다 0.81% 증가하고, 2022년 지니계수는 0.8999으로 1.11% 증가율이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겸업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업외 소득의 경우 2016년 기준 지니계수는 0.7109이고, 2021년 지니계수인 0.7144보다 0.49% 증가율을 보이고, 2022

년 지니계수는 0.7088으로 2016년 기준 지니계수보다 -0.30%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보조금의 경우 2016년 기준 지니계수는 0.4324이고, 2021년 지니계수인 0.3581보다 -17.19% 감소율을 보였으며, 2022년 지니계수 0.3608은 2016년 대비 -16.57% 감소율을 보였다. 이것은 농가소득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이후부터는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줄어들어 지니계수가 감소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적 보조금은 2016년 기준 지니계수는 0.9157이며, 2021년 지니계수인 0.9322보다 1.80% 증가율을 보였고, 2022년 지니계수 0.9345는 2016년과 비교하여 2.05% 증가율을 나타내 사적 보조금의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농가소득의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천별 소득 구조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공적 보조금의 지니계수 변화이며 공적 보조금의 감소율이 농가소득 감소율을 이끌었다. 공적 보조금은 다른 원천별 소득보다 0.3581~0.4324으로 낮은 지니계수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 변화율도 음의 값으로 소득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의 감소율은 공적 보조금의 감소 비중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연도별 농가소득 유형별 지니계수 변화

구분	연도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변화율	
		지니계수	지니계수 변화율
농가소득	2016년	0.4619	-
	2021년	0.4348	(-5.87%)
	2022년	0.4457	(-3.51%)
농업소득	2016년	0.7676	-
	2021년	0.7513	(-2.13%)
	2022년	0.7870	(2.53%)
겸업 소득	2016년	0.8900	-
	2021년	0.8972	(0.81%)
	2022년	0.8999	(1.11%)
사업외소득	2016년	0.7109	-
	2021년	0.7144	(0.49%)
	2022년	0.7088	(-0.30%)
공적보조금	2016년	0.4324	-
	2021년	0.3581	(-17.19%)
	2022년	0.3608	(-16.57%)
사적보조금	2016년	0.9157	-
	2021년	0.9322	(1.80%)
	2022년	0.9345	(2.05%)

주 : ( )안의 값은 2016년 대비 지니계수 변화율(%)을 의미함.



## 5. 결론

본 연구는 농가소득 유형(농업소득, 겸업 소득, 사업외소득, 공적 보조금, 사적 보조금)에 따라서 소득분위별(1~5분위) 소득과 소비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농가 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을 유형화(특·광역시 농촌, 일반농촌)하여 소득분위별 소득-소비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유형별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였다. 매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가경제 조사 2016년, 2021년, 2022년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소득분위의 농가소득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농업소득은 농가소득 패턴과 같이 202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은 감소하였다. 농가교역조건지수(통계청, 2023)를 살펴보면, 2016년(103.6), 2021(115.9), 2022(100.4)로 농업소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하여 2021년과 2022년 모두 모든 소득분위에서 공적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농가에서 공적 보조금에 대한 농가소득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김성용, 2004; 김태이, 안동환, & 임정빈, 2012; 박미선, 2023; Mishra et al., 2009)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우, 공적 보조금은 농가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고소득 농가(5분위)의 겸업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가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농일지라도 서구국가에 비하여 경지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촌관광, 가공 등 융복합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가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6년에 비하여 2021년과 2022년에 필수재와 선택재의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5분위에서 선택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미선(20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이계임, & 김성용(2003)의 연구 결과로 자산의 증가는 선택재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소비 비중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고소득 가구(5분위)의 선택재 소비의 감소는 농촌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분위가 2분위에 비하여 2016년, 2021년, 2022년에 전체 소비지출액과 선택재

에 대한 소비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퇴농이나 취미 농가가 1분위에 많이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지역별(특·광역시 농촌, 일반농촌) 농가소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1분위에서 특·광역시 농촌지역의 농가가 일반농촌의 농가에 비하여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특·광역시 농촌보다 일반농촌지역이 공적 보조금이 2016년에 비하여 2021년과 2022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5분위에서 일반농촌 지역의 농가가 특·광역시 농촌지역 농가보다 농업소득과 겸업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특·광역시 농촌지역은 사업외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김규섭, & 이성근, 2014; Findeis et al., 1987; Mishra et al., 2009)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특·광역시 농촌지역은 도시의 근접성에 따라 사업외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니계수에 의한 농가소득 유형별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2016년, 2021년, 2022년의 기간 동안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 소득은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공적 보조금은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소득에 비해 공적 보조금이 농가 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김태이, 안동환, & 임정빈, 2012; 허동용, 2018; Mbanasor et al., 2013; Mishra et al., 2009)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겸업 소득은 농가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고소득의 농가가 가공, 유통, 농촌관광 사업 등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l-Osta et al. (1995)에 따르면, 겸업 소득이 없는 전업농가가 소득 불평등이 낮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분위 농가에 공적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도록 공적 보조금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친환경 농업 활동이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적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보조금 정책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친환경 농업이나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보조금 정책과 연계해 강화하여 저소득층 농가들이 더 공적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가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된 농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광역시 농촌지역의 농가는 사업외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고, 농촌지역 농가는 공적 보조금이 크

게 증가하였다.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서는 사업외소득에 초점을 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농촌지역의 공적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을 더 세분화하지 못했지만,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작목별로 농가소득 구조를 분석하여 더욱 정교한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소득 농가는 겸업 소득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공, 유통, 농촌관광과 같은 겸업 소득 증가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겸업 소득은 지니계수가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겸업 소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 국가들은 소농들이 융복합사업이나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소득 농가들일수록 융복합사업이나 농촌관광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저소득 농가가 겸업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1분위 농가의 소비지출이 2분위 농가의 소비지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1분위 농가에 은퇴농이나 취미농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농가소득 정책이나 농가 불평등 완화 정책 수립 시 농가 유형을 세분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농업인 혹은 농가 지원 정책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정책 효과의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업인 혹은 농가의 정의를 엄격히 하여 농가소득 정책이나 불평등 완화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단위로 농가 표본이 바뀌는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 특성으로 인해 동일 농가의 소득 소비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농가 코드를 공개하든지 혹은 패널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유형(특·광역 농촌지역, 일반농촌지역)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원자료의 지역별 코드가 공개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유형을 더 세분화하지 못하였지만,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역코드와 작목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지역 농촌과 군지역 농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농촌지역 내의 소득구조의 변화를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는 공개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농가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 유형별 한계투자성향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농가의 후생 극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농가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득구조 변화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이 효과 때문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구조 변화, 그 자체를 제시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시기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고 소득이 하락한 측면도 있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개 연도의 연속데이터를 추가하여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고갑석, & 김윤식. (2016). 지니계수 분해법을 활용한 농가소득의 불평등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3(4), 733-758.
2. 김규섭, & 이성근. (2014).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0(2), 87-102.
3. 김기환, & 서병선. (2008). 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가구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연구: 도시 가구와의 비교. *농업경제연구*, 49(3), 97-132.
4. 김미복, 오내원, & 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132, 1-24.
5. 김성용, & 이계임. (2002).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농촌경제*, 25(4), 1-14.
6. 김성용. (2004). 농가소득 불균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원천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45(4), 97-115.
7. 김태이, 안동환, & 임정빈. (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53(1), 41-61.
8.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9. 박미선. (2023).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박준기, 김미복, 김태훈, 이두영, & 박지연. (2019).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1/5년 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박준기, 문한필, & 김용택. (200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27(4), 15-27.
12.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 한보현. (2017). 농가 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157, 1-28.
13. 유찬희, 김윤진, & 김창호. (2020). 유형별 농가경제 실

- 태와 이행 경로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7(1), 33-50. doi:10.12653/jecd.2020.27.1.0033
14. 윤영석, 이병훈, & 박준기. (2013). 농가의 고령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36(3), 33-51. doi: 10.36464/jrd.2013.36.3.002
  15. 이계임, & 김성용. (2003).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44(4), 39-58.
  16. 이두영, 박준기, 김미복, & 박지연. (2019).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해. *농촌경제* 42(1), 1-25. doi:10.36464/jrd.2019.42.1.001
  17. 이상원, 추성민, 김관수, & 안동환. (2017). 농업소득 변동성을 고려한 농외소득활동 참여 및 농외소득 결정요인 분석.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2)*, 1038-1057.
  18. 전지연, 유찬희, & 박준기. (2016). 논벼·양념채소 농가의 농업소득 변동 요인분석. *농촌경제* 39(3), 23-48.
  19. 정선화, & 강혜정. (2015). 한국 농가의 소득원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56(1), 119-136.
  20. 통계청. (2023).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1. 통계청. (2016, 2021, 2022). *농가경제 조사* 대전: 통계청.
  22. 허등용. (2018). 사플리 값을 이용한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소득원천별 기여도 분석. *농촌경제* 41(4), 1-27. doi: 10.36464/jrd.2018.41.4.001
  23. 황의식, & 문한필. (2005).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농촌경제* 28(4), 1-17.
  24. 황의식, & 박준기. (200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2, 65-91.
  25. Amare, M., Shiferaw, B., Takeshima, H., & Mavrotas, G. (2021). Variability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ural household consumption inequality: Evidence from Nigeria and Uganda. *Agricultural Economics*, 52(1), 19-36. doi:10.1111/agec.12604
  26. Babatunde, R. O. (2008). Income inequality in rural Nigeria: Evidence from farming households survey data. *Economics, Agricultural and Food Sciences*, 2(1), 134-140.
  27. Barry, P., Ellinger, P., Hopkin, J., & Baker, C., (2000). *Financial management in agriculture*. Danville, IL: Interstate Publishers.
  28. Barten, A. P., Theil, H., & Leenders, C. T. (1962). Farmers' budgets in a depression period.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30, 548-564. doi:10.2307/1909895
  29. Chang, H. H. (2012). Consumption inequality between farm and nonfarm households in Taiwan: A decomposition analysis of differences in distribution. *Agricultural Economics*, 43(5), 487-498. doi: 10.1111/j.1574-0862.2012.00598.x
  30. Chen, C. N., Tsaur, T. W., & Rhai, T. S. (1982). The gini coefficient and negative income. *Oxford Economic Papers*, 34(3), 473-478. https://www.jstor.org/stable/2662589
  31. Cutler, D. M., & Katz, L. F. (1992). Rising inequality?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consumption in the 1980s. *American Economic Review*, 82(2), 546-551. doi:10.3386/W3964
  32. Deaton, A. (1997).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A microeconomic approach to development policy*. World Bank Publications.
  33. El-Osta, H. S., Bernat, G. A.Jr., & Ahearn, M. C. (1995). Regional differences in the contribution of off-farm work to income inequality.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24(1), 1-14. doi:10.1017/S1068280500003567
  34. Findeis, J. L., & Reddy, V. K. (1987). Decomposition of income distribution among farm families. *Northeaster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16(2), 165-173. doi:10.1017/S0899367X00001495
  35. Mbanasor, J. A., Nwachukwu, I. N., Agwu, N. M., Njoku, M. S. E., & Onwumere, J. (2013). Analysi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dynamics among rural farm households in Abia state, Ni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and Agricultural Economics*, 1(2), 99-104. doi:10.22004/AG.ECON.160098
  36. Mishra, A. K., El-Osta, H. S., & Gillespie, J. M. (2009). Effect of agricultural policy on regional income inequality among farm households. *Journal of Policy Modeling*, 31(3), 325-340. doi:10.1016/J.JPOLMOD.2008.12.007
  37. Mishra, A. K., El-Osta, H. S., Morehart, M. J., Johnson, J. D., & Hopkins, J. W. (2002). Income, wealth, and the economic well-being of farm households.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81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38. Mishra, A.K., & Moss, C. B. (2008). Measurement of inequality by components of farm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Applied Economics*, 40(10), 1241-1252. doi:10.1080/00036840600722240

39. Saini, R., & Kaur, M. (2022). Income inequality and its decomposition among farm households in Punjab. *Cogent Food & Agriculture*, 8(1) 2069314. doi: 10.1080/23311932.2022.2069314

Received 04 December 2023; Revised 15 December 2023; Accepted 20 December 2023



Ms. Ha-Young Jeong is a Ph.D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s are community development and rural ecotourism.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wjgkdud2@naver.com  
phone) 82-41-330-1380



Ms. Ye-Jin Song is a master degree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s are rural tourism and community development.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thdwls135@naver.com  
phone) 82-41-330-1380



Dr. Duk-Byeong Park i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tourism, tourism marketing, and tourism development.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parkdb84@kongju.ac.kr  
phone) 82-41-330-1383

〈부록 1〉

